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9권 제3호, 2007
<연구논문>

J. Kor. Soc. Cloth. Ind.
Vol. 9, No. 3, pp.336-340(2007)

전업주부들의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김명우[1)] · 김성남[2)]
1) 국제대학 피부미용과
2)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Housewives on Scalp and Hair Management

Myung-Woo Kim[1)] and Sung-Nam Kim[2)]
1) Dept. of Skin & Beauty, Kookje College, Gyeonggi, Korea
2) Dep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 In this study, "housewives" are defined as married women who take care of housework mostly and do not work outside of home. Changing family types and higher education level of housewives enable them to be more interested in heath, beauty, and appearance. Increased interest and more frequent visits to hair salons cause scalp damage as well as hair damage, which results in hair loss. Moreover, some women suffers from scalp and hair damage due to childbirth, but many of them are not aware of it.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following; housewives' perceptions on hair and scalp management, and how such perceptions are formed. In addition, this study will present the direction for beauty marketing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housewives and provide data necessary for them to keep their hair and scalp healthy. For these purposes, a survey was carried out after modifying the questionnaire through a pre-survey. The survey tried to find 1) perceptions on hair and scalp manage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ttitude toward hair and scalp manage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cross tabulation, t-test, factor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o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air and scalp management but do not receive management because of the high cost, most of them receive information about hair and scalp management from people around them, and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and health status, the more active the attitude toward hair and scalp management. These differences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 words : hair management, scalp condition, perception, attitude

1. 서 론

급속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전업주부는 가정에서 빨래하고 밥하는 무보수 노동자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무능력자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현대전업주부들은 미에 대한 지향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아름다움을 차별화, 고급화, 전문화하고 포괄적인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미용지향의 수요를 증대시켰다(김정희, 2000).

아름다워 지고자 하는 여러 분야중에서도 특히나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요구는 모발의 물리적, 화학적 미용행위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발뿐 아니라 두피까지도 손상됨을 초래하여 탈모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성현, 2003). 따라서 이제는 건강한 모발이 미인을 만든다 (김미옥, 2003)는 의식속에 두피·모발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원경(1998)은 선행연구에서 예전보다 잦아진 펌과 컬러링 등에 의한 모발손상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고, 강연화(2003)는 두피 및 모발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황춘희(2002)는 모발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민동걸(2005)의 연구에서 전업주부는 여유시간이 있지만 일상의 시간표가 가족에게 맞추어져 있고 여유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란 사전적 의미로 기혼여성으로 가사내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주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주부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전업주부들은 직장기혼여성과는 낮에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지만 전업주부들의 미적 의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후로 인한 두피·모발의 손상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두피·모발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반해 주부들의 두피·모발의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관리의 수준이 저조하며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업주부들의 직접 면접 조사를 실시한 바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Corresponding author; Sung-Nam Kim
Tel. +82-31-940-7548, Fax. +82-31-763-5437
E-mail: idohair@skuniv.ac.kr

두피 ·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관리의 중요도, 관리경험유무와 관리경험이 없는 경우의 원인, 정보원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에따른 태도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파악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손쉽게 두피 · 모발 관리를 할 수 없는 전업주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미용마케팅 확립방향을 제시하고 전업주부들의 건강한 두피 · 모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업주부들의 두피 ·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한 실증적인 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설계된 조사내용으로 Pilot test(예비조사)를 1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측정척도는 윤주화(2005), 조성선(2001), 현애자(2004), 김지현(2005)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재인용하거나 본 연구의 조사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포이동, 양재동, 경기도 분당, 광주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06년 6월 15일부터 7월 25일에 거쳐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한 310부중 불성실한 응답 14부를 제외한 29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인구통계적 특성은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수입, 출산유무, 건강상태, 생활습관, 식습관으로 구성하였다. 두피 · 모발 관리인식은 두피 · 모발관리 중요도, 관리 경험 유무와 원인, 정보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두피 · 모발 관리 태도는 조성선(2001)의 선행문헌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 11.5를 사용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은 빈도분석,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두피 · 모발 관리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두피 · 모발 관리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t-test,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피 · 모발관리 태도의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해 12개의 특정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자료가 요인분석의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Bartlett의 단위행렬(구형성) 점검 결과 X^2 = 770.67(P<.001)로 나타나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였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0.839로 나타나 측정자료가 요인분석의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다. 단, 공통성 점검 결과 3문항(0.226, 0.309, 0.377)이 낮은 값을 보였으므로 이들 3문항을 염두에 두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는 공통성, 고유치, 측정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3개가 적절하였으므로 두피 · 모발관리 태도의 하위요인을 3개로 설정하였다. 요인1(19.70%)은 두피 · 모발 관리에 있어 전문적인 관리를 받았거나 염색을 자주 했거나 미용실에 가는 행위를 했을 때의 관리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모발관리'로, 요인2(19.30%)는 펌이나 염색 후 두피나 모발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에 관련된 문항으로 '모발 제품'으로, 요인3(10.04%)은 두피 · 모발에 대한 관심 항목으로 '모발 관심도'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설명력은 49.03%이며, Cronbach' α값이 모두 0.65 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1).

3. 결과 및 고찰

3.1.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 연령분포는 20~30대가 66.9%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46.3%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가계 소득으로는 250만원 이상이 47.6%으로 높았고 출산 유무는 출산한 경험이 있는 주부가 88.9%로 과반수 이상 응답하였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79.4%로 대다수의 주부들이 건강하다로 응답하였다. 생활습관은 규칙적이 62.5%, 식습관은 규칙적이 50.7%

Table 1. 두피 · 모발관리 태도에 따른 요인분석

측정문항	모발관리	모발제품	모발관심도	공통성
두피 및 모발관리 전문샵에서 전문관리를 받고 싶다	.697	.081	.245	.552
두피 및 모발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습관은 중요하다	.678	.156	-.225	.534
모발관리를 함으로써 외모를 더욱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652	.288	.014	.508
주위에서 두피 및 모발관리를 받고 좋아졌다면 나도 받고 싶어진다	.643	.198	.261	.520
염색을 자주하는 것은 두피 및 모발관리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508	.129	-.186	.309
미용실에 가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432	-.138	-.141	.226
펌이나 염색 시술 후 전용샴푸를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126	.769	.219	.656
두피상태에 맞게 샴푸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175	.713	-.094	.548
모발이 손상되면 손상전용제품으로 관리하겠다	.200	.691	.228	.569
두발화장품을 사용하면 모발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195	.660	-.031	.475
두피 및 모발관리에 관하여 주위사람들과 이야기 한다	.022	.017	.788	.621
두피 및 모발관리에 대한 책이나 잡지를 읽어보겠다	.387	.179	.442	.377
고유치	2.561	2.508	1.305	
설명분산(%)	19.700	19.295	10.038	
누적분산(%)	19.700	38.995	49.034	
신뢰도	0.698	0.732	0.658	

Table 2.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빈도(n)	백분율(%)
연령(N=296)	20~30대	198	66.9
	40~50대	98	33.1
	고졸	71	24.0
학력(N=296)	전문대졸	88	29.7
	대졸 이상	137	46.3
	150만원 미만	34	11.5
월평균 수입(N=296)	150~200만원 미만	47	15.9
	200~250만원 미만	74	25.0
	250만원 이상	141	47.6
출산유무(N=296)	있음	263	88.9
	없음	33	11.1
건강상태(N=296)	매우 건강	38	12.8
	건강	235	79.4
	건강하지 않음	23	7.8
생활습관(N=296)	매우 규칙적	20	6.8
	규칙적	185	62.5
	불규칙적	86	29.1
	매우 불규칙적	5	1.7
식습관(N=296)	매우 규칙적	18	6.1
	규칙적	150	50.7
	불규칙적	120	40.5
	매우 불규칙적	8	2.7
합계		296	100.0

로 대체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두피 · 모발관리 인식

관리 중요도 : 관리 중요도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82.8%로 가장 높았고, 40~50대는 67.3%로 높았다. 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두피 · 모발관리의 중요도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주화(2005)의 연구에서 두피 · 모발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가 26.9%,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다가 58.2%로 과반수 이상 두피 · 모발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대가 40~50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30대가 40~50대보다 잦은 펌과 염색 등의 화학적인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조성선(2001)의 연구에서 20대의 여대생들은 염색이나 탈색이 외모를 돋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모발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색과 탈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이 규칙적인 응답 82.8%, 식습관이 규칙적인 응답 75.6%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불규칙적인 응답자도 높은 비율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관리 경험 : 관리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20~30대는 없음이 76.8%, 40~50대는 75.5%로 많은 응답자들이 관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관리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가 29.9%, 전문샵 몰라서 13.4%, 집근처 가까운 곳에 없어서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영란(2003)의 연구에서는 직장인 여성들의 관리 경험이 없는 이유로 비용적 부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효과가 없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두피 · 모발 관리를 받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정보원 : 두피 · 모발 관리에 관한 정보를 얻는 매체로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0~30대는 30.8%가 TV를 통해서 40~50대는 36.7%가 주위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으

Table 3. 관리 중요도

조사대상자의 특성		두피 · 모발 관리의 중요도			Row total(%)	χ^2(df)
		매우 중요	중요	중요하지 않음		
연령	20~30대	20(10.1%)	164(82.8%)	14(7.1%)	198(100%)	9.174*(2)
	40~50대	20(20.4%)	66(67.3%)	12(12.2%)	98(100%)	
생활습관	규칙적	30(14.6%)	157(76.6%)	18(8.8%)	205(100%)	0.727(2)
	불규칙적	10(11.0%)	73(80.2%)	8(8.8%)	91(100%)	
식습관	규칙적	27(16.1%)	127(75.6%)	14(8.3%)	168(100%)	2.193(2)
	불규칙적	13(10.2%)	103(80.5%)	12(9.4%)	128(100%)	

n=296, *P<.05

Table 4. 관리 경험

조사대상자의 특성		두피 및 모발관리를 받아본 경험		Row total(%)	χ^2(df)
		있음	없음		
연령	20~30대	46(23.2%)	152(76.8%)	198(100%)	0.057(1)
	40~50대	24(24.5%)	74(75.5%)	98(100%)	
생활습관	규칙적	45(22.0%)	160(78.0%)	205(100%)	1.064(1)
	불규칙적	25(27.5%)	66(72.5%)	91(100%)	
식습관	규칙적	34(20.2%)	134(79.8%)	168(100%)	2.503(1)
	불규칙적	36(28.1%)	92(71.9%)	128(100%)	

로 조사되었다. 또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규칙적인 응답자일수록 31.7%이상 주위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문영란(2003)의 연구에서 20~30대 기혼직장인의 경우 정보를 얻는 매체로 잡지, 신문, 서적을 통해 정보를 얻고, 참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업주부와 기혼 직장인과는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업주부는 집에서 TV라는 매체를 많이 접하고 있고, 직장 기혼여성은 서적이나 신문 등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한 결과라 사료된다. 윤주화(2005)의 연구에서 한국여성의 20~30대는 TV를 통해서, 40~50대는 주위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두피 · 모발관리 태도

모발관리 요인은 학력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졸이하의 집단(3.12)보다 전문대 재학 이상의 집단(3.26)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학력이 높을 수록 두피 · 모발관리의 지식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여 두피 · 모발관리의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모발제품 요인은 건강상태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매우 건강한 집단(3.11)이, 건강 하지 않은 집단(3.03)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매우 건강한 집단이 건강하지 않은 집단보다 모발상태에 따른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관심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4. 결 론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96명의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두피 ·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30대가 많았고,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자, 월가계수입은 250만원 이상, 건강상태는 건강하고, 생활습관, 식습관이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에서 관리중요도는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관리경험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피·모발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관리 경험이 저조한 원인으로 가격이 비싸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 정보원으로

Table 5. 관리 정보원

조사대상자의 특성		두피 · 모발 관리에 관한 정보원					Row total(%)	χ^2(df)
		신문, 잡지	TV	인터넷	주위사람들	기타		
연령	20~30대	38(19.2)	61(30.8)	27(13.6)	54(27.3)	18(9.1)	198(100)	10.183*(4)
	40~50대	24(24.5)	14(14.3)	13(13.3)	36(36.7)	11(11.2)	98(100)	
생활습관	규칙적	42(20.5)	46(22.4)	31(15.1)	65(31.7)	21(10.2)	205(100)	4.062(4)
	불규칙적	20(22.0)	29(31.9)	9(9.9)	25(27.5)	8(8.8)	91(100)	
식습관	규칙적	34(20.2)	39(23.2)	24(14.3)	55(32.7)	16(9.5)	168(100)	1.681(4)
	불규칙적	28(21.9)	36(28.1)	16(12.5)	35(27.3)	13(10.2)	128(100)	

(%), *P<.05

Table 6.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태도

조사대상자의 특성		모발관리		모발제품		모발관심도	
		M	S.D	M	S.D	M	S.D
연령	20~30대(n=198)	3.25	0.32	2.97	0.33	2.59	0.56
	40~50대(n= 98)	3.17	0.37	3.02	0.31	2.63	0.51
	t	1.915		-1.168		-0.540	
	P값	0.056		0.244		0.589	
학력	고졸 이하(n= 71)	3.12(a)[1]	0.32	2.91	0.27	2.61	0.49
	전문대 재/졸(n= 88)	3.26(b)	0.32	3.00	0.33	2.60	0.52
	대재 이상(n=137)	3.26(b)	0.36	3.02	0.34	2.60	0.58
	F	4.783**		3.012		0.014	
	P값	0.009		0.051		0.986	
건강상태	매우 건강(n= 38)	3.21	0.42	3.11(a)	0.32	2.66	0.48
	건강(n=235)	3.23	0.33	2.96(a)	0.33	2.57	0.54
	건강하지 않음(n= 23)	3.21	0.29	3.03(a)	0.24	2.85	0.55
	F	0.124		3.473*		3.012	
	P값	0.883		0.032		0.051	

(a)[1] the result of Scheffe test a<b
*P<.05, **P<.01

는 20 ~30대는 TV, 40~50대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두피 · 모발관리에 대한 태도는 학력이 높고 건강할수록, 모발이 손상된 응답자는 두피 · 모발 관리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로 보아 규칙적인 생활습관, 식습관이 두피 · 모발을 건강하고 윤기 있게 관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업주부들 대부분은 두피 · 모발관리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태도가 소극적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실천할 수 있는 전업주부의 특성을 고려한 저렴한 가격, 체계적인 전문점과 관리 시스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강연화 (2003) 두피 및 탈모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성현 (2003) 여대생들의 모발건강관리 태도와 실천행동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옥 (2003) 모발 및 두피의 손상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 (2000) 대학생들의 두피관리행위와 모발특성 및 헤어스타일과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 (2005) 두피 · 모발 관리실의 고객만족도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영란 (2003) 직장인의 두피 ·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동걸 (2005)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주화 (2005) 한국 여성의 두피및 모발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경 (1999) 미용시술 처치에 따른 두피 및 모발의 변화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2), 47-79.

조성선 (2001) 여대생의 모발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춘희 (2002) 헤어클리닉의 문제와 방법에 관한 연구 -모발과 두피 손상의 원인과 관리방법을 중심으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논문집*, **8**, 223-230.

현애자 (2004) 두피 클리닉 이용자의 모발 및 두피관리 실태와 서비스 이용결정요인.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년 11월 13일 접수)